

행복도시 Vol. 229호 4월



행복청 SNS
바로 가기

베일 벗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안, 국민의 선택은?

- 국내 우수 건축가 참여 17개 출품작 중 2차 심사 진출 5개 안 최종 압축
- 행복청, 4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국민공감투표’ 실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 설계 공모 2차 심사에 진출한 5개 작품을 대상으로 국민공감투표를 실시하였습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국민공감투표는 전문가 심사와 별도로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도를 확인하고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설계공모는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상징하는 국가적 핵심 시설을 건립한다는 점에서 국내 건축계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6일 공고를 시작으로 4월 8일 작품 접수를 마감한 결과, 국내를 대표하는 우수한 설계사무소들의 작품 총 17개가 출품되어 치열한 경합을 벌였습니다.

행복청은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건축·도시·조경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4월 13일 1차 심사를 마쳤으며, 2차 본심사에 진출할 5개 작품을 선정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2차 심사에 진출한 작품들에 대해 지형과 주변 맥락을 고려하고 이에 순응하는 배치안을 제시한 점, 전통건축의 미학을 현대적 소재로 재해석하여 입면 디자인을 계획한 점,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간을 배치한 점 등이 우수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중심이자 세종시의 상징적 공간에 걸맞게, 집무실을 국격을 상징하는 무게감 있는 공간으로 해석한 안부터 상징성을 과감히 덜어내고 실용적인 행정시설로 공간을 유연하게 풀어낸 안까지 다채로운 건축적·도시적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입니다.

참여하는 국민들도 집무실로서의 상징성, 주변 자연환경 및 도시적 맥락과의 조화, 국민과의 소통 및 한국적 건축미 구현 방식 등에 관심을 갖고 작품들을 살펴보면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5개 작품은 접수순으로 [공유풍경 Commonscape], [채와 마당으로 구현한 국가상징공간, 지혜의 풍경], [열린 권력의 표상 The Representation of Open Power], [질서로서의 국정 : 제도의 공간적 태도], [국민의 뜻으로 하나된 풍경], [민의원경(民意一景)]입니다.

투표에 참여하는 국민을 대상으로는 심사가 모두 완료된 후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을 지급할 예정이며, 당첨자는 5월초 홈페이지에 공지됩니다. 최다 득표를 한 작품에는 당선작 및 입선작에 대한 시상과 별도로 ‘국민공감 특별상’과 상금 1천만 원이 수여됩니다.

국민공감투표가 대통령 세종집무실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이 공감하는 설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국격에 걸맞은, 국민적 자긍심과 눈높이에 맞는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건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민공감투표

당신 마음속 1등에 투표하세요!

투표기간 | 2026.4.17.(금) ~ 2026.4.23.(목)

대통령 세종집무실 1차 설계공모 당선작 중 가장 마음에 드는 작품에 투표해주세요!

참여방법

- QR코드 스캔 또는 공공 홈페이지 접속 (www.hkcpa.go.kr)

경품

- 1등: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
- 2등: 50만원 상당의 상품권
- 3등: 20만원 상당의 상품권

투표 참여자에게 추첨을 통해 상품을 제공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민과 함께 설계하는 국가상징구역... 국민자문단 '모두랑' 현장 활동 시작

- 국민자문단 '모두랑' 제1차 공간기행 실시... 세종·대전 주요 공간 방문
- 현장 체험과 분임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
- 경주, 서울·부산 등 전국 공간기행 추진... 연말 '국민제안서' 발표 예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4월 3일(금) 모두랑 국민자문단과 함께 세종·대전 일대에서 1차 공간기행을 실시하며, 국민 모두의 국가상징구역 조성을 위한 현장 중심 자문활동을 본격화했습니다.

모두랑 국민자문단은 국민이 공감하는 국가상징구역을 조성하기 위해 출범한 대국민 소통 플랫폼으로, 시민 50명과 전문가 22명 등 총 72명으로 구성돼 올해 2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3월부터 안전토론 등 본격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첫 공간기행에는 국민자문단 및 관계자 등 25명이 참석했으며 국가상징구역 현장방문, 대전 시민광장 및 e스포츠 경기장 탐방, 분임토론 등의 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먼저 자문단은 국가상징구역 조성현장을 직접 방문해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시민공간 등 주요사업 추진현황과 공간구상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주변시설과의 연계성 및 입지여건을 확인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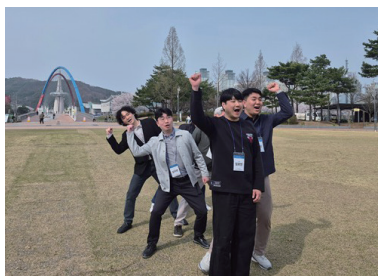
이어 대전 시민광장 일대(시민광장·엑스포다리·한빛탑)를 둘러보며 보행 중심 공간 구성, 미술관 등 주변시설과의 연계, 개방형 광장 운영 사례 등을 살펴보았으며, 특히 대전e스포츠 경기장 건학을 통해 국가상징구역에 도입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시야를 넓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진 분임토론에서 자문단은 각자 느낀 현장의 장단점을 바탕으로 국가상징구역에 필요한 기능과 실제 적용 가능성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특히 상징성과 체류성을 고루 갖춘 '체험형 공간'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공간기행에 참여한 한 국민자문단원은 "국가상징구역이 단지 상징적인 공간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일상적으로 찾고 머물 수 있는 장소로 조성돼야 한다는 점을 현장에서 더 실감할 수 있었다"며 "세종과 대전의 다양한 공간을 직접 둘러보며 시민공간이 갖춰야 할 요소를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행복청은 이번 세종·대전 공간기행을 시작으로 경주(5월), 서울(7월), 부산(9월), 전주(11월) 등에서 추가 공간기행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분임별 제안사항과 격월로 진행되는 정책 아이디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연말 국민제안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국가상징구역은 국가적 상징성을 갖추는 동시에 국민 누구나 편하게 찾고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자문단과 함께 현장에서 시민의 시각으로 필요한 의견들을 직접 발굴하여, 국가상징구역을 실제 일상에서 자주 이용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제33차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교통협의회 개최

• 광역교통 개선 방향 논의 및 충청권 협력 강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4월 23일(목) 제33차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교통협의회를 개최하여, 광역 대중교통 기반시설 확충과 광역계획권 교통체계 발전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2028년 개통을 목표로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과 전국 최초의 3칸 굴절버스 시범사업 등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에 앞장서고 있는 대전광역시에서 개최되어 충청권 광역교통 연계의 상징성을 더 했습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국정과제인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광역권 교통 핵심 안건들이 다뤄졌습니다. 우선 '행복도시 내 국가상징구역 관련 광역 교통 추진 현황 및 개선 방안'을 공유하고, 광역교통망의 핵심 동맥인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추진현황도 집중적으로 점검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세종~조치원 BRT 노선은 2027년 운행을 목표로 현재 실시계획을 수립 중이며, 올해 하반기 착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세종~공주 광역 BRT는 2024년 11월 착공하여 올해 10월 준공, 2027년 1월 운행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충북도는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의 시외버스 대상 확대 적용을 제안했고, 청주시는 오송역 중심의 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 추진현황을 공유하며 환승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대전시에서는 차고지 건설 예정인 건양대학교병원에서 참석자들에게 신교통 수단인 3칸 굴절차량에 대한 설명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해당 차량은 최대 230명까지 수송 가능한 대용량 교통수단으로 저장형 구조로 설계되어 노약자와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대전시는 오는 6월까지 도안동로 일부 구간(감천4블럭~용반네거리)에서 시험운행을 실시한 뒤, 전용차로 및 차고지 구축 일정에 맞춰 올해 10월까지 단계적으로 개통할 계획입니다.



‘따로’ 또 ‘같이’의 가치... 세종공동캠퍼스 5개 대학 900여명의 청춘이 그리는 융합의 캔버스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집현동)에 자리한 세종공동캠퍼스 1단계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달 초 충남대 의대의 입주를 끝으로 서울대·KDI(정책학), 충북대(수의학), 한밭대(IT)로 이루어진 임대형 캠퍼스가 온전한 제모습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국내 최초 ‘공유형 캠퍼스’ 모델로 2024년 9월 닷을 올린 세종공동캠퍼스는 개교 3년 차에 접어든 올해, 5개 대학 총 878명의 학생이 저마다의 꿈을 안고 학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대학 간 장벽을 허물고 새로운 융합의 시대를 열 혁신적인 실험이 비로소 본궤도에 오를 채비를 마친 셈입니다. 다른 대학, 다른 전공의 학생들이 하나의 울타리 안에서 어떤 일상을 그려내고 있을지, 국립한밭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학과 재학생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세종공동캠퍼스의 역동적인 오늘과 눈부신 미래를 들여다 보았습니다.

‘낯설’을 넘어 ‘활기’로 채워지는 캠퍼스

한밭대 인공지능소프트웨어학과는 세종공동캠퍼스 개교와 함께 나란히 역사를 써온 주역 중 하나입니다. 학생들이 캠퍼스에 첫발을 내디뎠을 때 느낀 감정은 ‘설렘’과 ‘낯섦’의 교차였습니다. 전역 후 복학을 앞두고 캠퍼스를 찾았던 전현수(3학년) 학생은 “주변 경관과 어우러진 신축 건물과 최신식 시설을 둘러보며 하루 빨리 학교에 다니고 싶다는 생각에 설렘”고 회상했습니다. 김태유(2학년) 학생 역시 “모든 시설이 깔끔하고, 학습 몰입을 방해하는 유혹 거리가 없어 온전히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이상적인 환경”이라고 첫인상을 전했습니다.

물론 시작부터 적응이 쉬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존의 성숙한 대학가 상권에 익숙했던 학생들에게 이제 막 인프라가 조성되기 시작한 캠퍼스 환경은 다소 생소하고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김현정(4학년) 학생은 “초기에는 캠퍼스 곳곳이 여전히 공사 중이었고, 식당 같은 시설이 부족해 배달에 의존해야 하는 게 아쉬웠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연서(4학년) 학생도 “개발이 진행 중인 신도시에 새로 만들어진 캠퍼스라서 그런지 대중교통 노선이 많지 않았고, 배차 간격 때문에 길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게 불편했다”고 솔직한 감상을 말했습니다.

이러한 초창기 학생들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뒷받침한 것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시, LH가 협력해 마련한 세심한 주거 및 교통인프라 지원이었습니다. 기숙사 완공 전에는 캠퍼스가 있는 집현동 일대의 LH 행복주택을 재학생들에게 우선 공급하여 주거 공백을 메웠고, BRT(간선급행버스체계) 노선을 캠퍼스 인근으로 촘촘히 연결하여 나성동, 보람동 등 주요 상권 및 대전으로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였습니다. 신도시의 신규 캠퍼스가 가질 수 있는 고립감을 해소하고, 학생들이 학업과 일상의 균형점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입니다.

현재 임대형 캠퍼스 입주가 모두 마무리되고 식당과 편의시설 등 주변 여건이 성숙한 지금, 캠퍼스를 둘러싼 공기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화려한 유흥가 대신 쾌적하고 조용한 대학가 분위기를 ‘지적 몰입에 최상’이라며 환영하는 학생이 더 많아졌다는 전언입니다.



‘따로’ 또 ‘같이’, ‘스마트’하게 배우고 ‘자연’ 속에서 쉬다

인터뷰에 응한 한밭대 학생들이 꿈은 세종공동캠퍼스의 최대 장점은 단연 ‘독립적이고 쾌적한 전용 공간 사용’입니다. 예전 본교 캠퍼스에서는 보통 한 학과가 건물 한 층만을 사용했지만, 세종 공동캠퍼스에서는 인공지능소프트웨어학과만의 단독 건물을 배정받아 강의실·연구실은 물론, 휴식이나 모임의 공간도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우리만의 공간에서 동기, 선배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며 더욱 끈끈한 유대감을 쌓고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서예린(3학년) 학생은 “초기에 부족했던 여가 시설에 대한 불편함은 동기들과 함께 도시 이곳저곳의 명소들을 탐방하며 극복했고, 학우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오히려 좋았다”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밖에도 세종공동캠퍼스는 국내 최고 수준의 스마트 학습 환경을 갖춘 것으로 이름 높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제작과 화상 회의, 온라인 강의 등에 활용되는 최신식 미디어 장비를 갖춘 스마트 스튜디오, AI·빅데이터 사이언스 등 단독대학이 구축하기 어려운 고사양 실험실 및 연구인프라. 이 중에서도 학문과 진리의 구심 역할을 하는 ‘학술문화지원센터’는 단순한 열람실을 넘어선 공간의 혁신을 이뤄낸 사례입니다. 내부에는 개방감을 극대화한 계단식 도서관과 집중을 위한 개인 열람실, 활발한 토론 활동을 뒷받침하는 그룹 스터디룸, 프레젠테이션 장비가 완비된 세미나실 등이 입체적으로 조성되어 있어 학생들의 창의적인 학습을 지원합니다.

물리적 장서와 공간의 한계를 초월한 온라인 기반 ‘스마트 도서관’을 구축한 것도 세종공동캠퍼스만의 특별한 점입니다. 첨단 RFID 도서 시스템을 도입해 관리의 효율을 높였고, 캠퍼스 내 모든 대학이 소유한 방대한 양의 전문 서적과 최신 전자저널 등을 언제 어디서든 열람할 수 있도록 통합 인프라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 대학의 학생과 연구자들은 소속의 벽을 넘어 지식과 데이터를 자유롭게 공유하며 융합 연구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도심 속 자연에서 만끽하는 캠퍼스 낭만도 빠질 수 없습니다. 뒤로는 해발 200m 남짓의 산세가 부드러운 괴화산이 캠퍼스를 감싸안고, 앞으로는 맑고 깨끗한 삼성천의 물줄기가 금강

본류로 이어집니다. 이 푸른 숲길과 강변을 산책하며 학생들은 휴식과 사색을 즐기고, 때로는 지적 영감이 번뜩이는 기회를 얻기도 합니다.



함께 만들어 가는 세종공동캠퍼스의 미래

세종공동캠퍼스의 진정한 가치는 여러 대학이 하나의 캠퍼스 공간을 공유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융합의 시너지를 창출하는 데 있습니다. 임대형 캠퍼스 내 정책학·수의학·의학·IT 등 다양한 전공이 한곳에 집적되면서 학생들 역시 인적·학문적 융합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연서(4학년) 학생은 “인공지능 전공자의 시각에서 공동캠퍼스의 개념은 텍스트·음성·이미지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다루는 융합학습의 장을 떠올리게 한다”면서 “캠퍼스 내 다양한 전공 지식이 인공지능과 결합한다면, 학문의 범주를 넘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혁신적인 융합 기술이 탄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날카로운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김현정(4학년) 학생 역시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모여 문제를 해결하는 ‘해커톤’이나, 연합동아리 활동, 공동 프로젝트 등이 활성화된다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폭발적으로 쏟아지지 않겠냐”라면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세종공동캠퍼스는 지금, 단순한 교육 시설을 넘어 여러 대학의 청년들이 모여 새로운 캠퍼스 문화를 만들어 가는 거대한 공동체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행복청은 공유형 캠퍼스라는 이 독특한 융합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창의성을 키우고, 꿈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각종 인프라 구축 및 다양한 지원제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행복도시 개발 경험 세계로... 4개국과 글로벌 협력 강화

- 행복청, 몽골·이집트 등 4개국 고위급 공무원 초청, 2026 글로벌 연수 추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4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몽골, 이집트, 도미니카공화국, 스리랑카 4개국 고위급 정책결정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6 행복도시 글로벌 초청 연수'를 운영합니다.

이번 글로벌 초청 연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을 활용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되는 4개국 공동연수 프로그램입니다.

지난해에는 중간관리자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액션플랜을 수립하고 향후 협력 사업으로 발전 가능한 도시개발 분야의 사업 아이디어 도출했습니다. 올해에는 한국의 도시개발 및 균형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KOICA 후속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제안서(PCP) 수립할 계획입니다.

행복청은 4월 13일 입교식을 시작으로 세종시 일원에서 현장견학, 정책 강의 등을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행복도시 건설 추진체계와 자원 조달 구조, 중앙행정 기관 이전 및 교통계획 등 실제 행정 경험을 중심으로 연수생들과 지식을 공유하고 소통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번 연수는 6개 모듈로 구성되며, 강의 13회, 세미나 4회, 워크숍 4회로 진행됩니다. 주요내용은 한국의 통합적 도시개발 전략과 사례, 국제개발 협력 프로그램을 활용한 사업구조화 방안, 행복도시 건설과정과 개발경험, 공공주도 주택 공급 모델과 도시 재구조화, 도시교통전략 및 기후위기 시대 도시 대응방안 등입니다.

또한 강의주제와 연계한 현장학습도 병행합니다. 연수생들은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을 둘러보고 공공자전거 어울림을 이용하며 공공건축물을 탐방합니다. 아울러 서울과 판교, 철도 교통시설 등을 방문하여 한국의 도시개발 성과를 직접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날 연수에 참여한 몽골측 연수생 대표는 "행복도시는 도시계획과 행정기능, 정주여건이 조화롭게 구현된 매우 인상적인 도시"라며 "이번 연수는 한국의 개발 경험과 추진과정을 이해하고 자국의 정책과 사업에 접목할 시사점을 얻는 뜻깊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4교시

행복이와 한글교시



1 '왕배덕배'의 뜻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러니저러니 하고 시비를 가리는 모양 ☒ 적극적인 의지가 없이 되는데로 행동하는 모양

2 '올차다'의 뜻으로 알맞은 것은?

속이 짝차고 실속있다 허술한 데가 없이 아무지고 기운차다 ☒

사자성어 배워가기

좌 고 우 면

(左) (顧) (右) (眄)

앞뒤를 재고 망설임을 이르는 말

숙제코너 속담 퀴즈

- 1 가을 ○○는 문 걸어 잠그고 먹는다
- 2 눈은 있어도 ○○○이 없다
- 3 장꾼은 하나인데 ○○○○는 열둘이라

3교시 숙제코너 정답 ➡

1번 개동 2번 날고기 3번 고쟁이



행복청, 보도자료 빈칸 채우기 퀴즈 이벤트

QUIZ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 설계공모 2차 심사에 진출한

5개 작품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하였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진흥원

수요일은 문화일

문화가 있는 날

2026년 4월

매주 수요일 확대

도시·영화·공연·전시·문화유산

지역 특화 프로그램

온라인 문화 콘텐츠

불철 산불조심기간 | 1.20~5.15

산불은 막을 수 있는 재난입니다!

산불 신고

산림청 산불상담실 042-481-4119

소방서 119 | 경찰서 112

“산에 불을 지른 자는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산림보호법」 제 53조

산림청

보건복지부

행복도시 129

세 가지가 좋아진 아동수당

2026년 아동수당 변경사항 안내

하나! 아동수당 지원 연령 확대!

▶ 8세 미만 ⇨ 13세 미만으로 매년 1세씩 단계적 확대

* ('25) 8세 ⇨ ('26) 9세 ⇨ ('27) 10세 ⇨ ('28) 11세 ⇨ ('29) 12세 ⇨ ('30) 13세 미만

둘! 거주지역에 따른 추가 지원

▶ 비수도권 월10만원 ⇨ 0.5만원

▶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역 월10만원 ⇨ 1만원

▶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역 월10만원 ⇨ 2만원

셋! 지역사회상생지원 지급 시 추가 지원

▶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회상생지원으로 아동수당 지급하는 경우, 월 1만원 상당액 추가 지급

▶ 아동수당법 개정('26. 3월)에 따라 확대되는 부분은 '26. 4월 이후 지급 예정이며, '26. 1월부터 소급지급 됩니다.

▶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지원이 종료된 '17. 1월생~'18. 3월생 아동은 지자체에서 신청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

▶ 아동수당 신청을 유도하는 ▲ 피싱 문자에 유의하세요!

(정부에서 보내는 문자는 링크나 쿠폰코드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진드기매개감염병 예방 및 관리수칙

01 예방 야외활동 전

옷 제대로 입기

머리, 목, 팔, 다리, 손목, 발목 등 노출 부위 보호

02 예방 야외활동 전/중

기피제 뿌리기

보조도구 사용하기

03 예방 야외활동 직후

씻고, 씻고, 빨래하고

01 관리 야외활동 후 2주 동안

증상 살펴보기

물린 흔적 찾기

02 관리 발생 의심 즉시

빨리 치료하기

위치 마세요!

진드기 조심하고

씻고, 빨래하고

찾아보고

빨리 치료하기!!

질병관리청